

일손 부족 영농 차질에 치솟은 인건비 부담 '이중고'

코로나에 농번기 인력난...영광 고구마밭 파종작업 직접 해보니

봄별인데도 10분만에 땀 범벅
30분만에 손·다리 후들후들
점심 손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
일꾼 53명 내국인 한 명도 없어
외국인근로자 입국 못해
대부분 불법 체류 외국인 대체
하루 인건비 절반 가까이 올라

손 주변을 흙으로 덮는 작업으로 고구마 순이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30cm 길이 모종삽을 손에 들고 고랑사이에 몸을 쭈구리고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막상 시작해보니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한지 10분쯤 지나자, 봄 햇볕 탓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능숙한 다른 사람들 보다 3m는 뒤쳐져 있었다. 다시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골반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일어나 다리를 벌리고 섰다. 하지만 얼마 못가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지만 팔이 후들거려 손가락을 제대로 들기조차 힘들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전남 농촌 들녘은 일손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인력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대부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농가마다 파종 시기마저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국인을 대신해 농촌의 손발이 됐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한 데다 농사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어 인력난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전남 농가를 광주일보 기자가 직접 방문, '1일 농부' 체험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과 농사의 어려움을 취재했다.

지난 3일 오전 영광군 대마면의 한 고구마밭. 이곳에서는 고구마 순 파종작업이 한창이었다.

직접 밭으로 들어가 파종 작업을 함께 해봤다. 앞 사람이 멀칭 비닐 위에 고구마 순을 심고, 뒷사람이

농장주 이모씨는 "처음 하면 고된 일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 소유의 고구마 밭 6000평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구마 순 파종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53명, 이들은 모두 외국인노동자들로 내국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남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코로나19로 가중됐다.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불법체류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일손에 보탬이 됐던 노인 인력마저 손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자체 공공근로로 모두 빠져나가 인력난은 심화된 상태.

이씨는 "영광에 직업소개소만 대여섯 곳이 넘지만 농사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지난 3일 영광군 대마면 한 고구마 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고구마 순 심기 작업을 하고 있다.

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 이들도 수소문 끝에 정말 힘들게 고용했다"며 "사실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들이다. 불법이지만 이들 없이는 농사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손 부족 문제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019년 여성 8만원, 남성 10만원 수준이었던 전남 농촌지역 하루

임금이 각각 13만원, 15만원으로 급등했다.

한 인력중개업소 운영자는 "임금이 오를 대로 올랐지만,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들)를 소개해달라는 농가들의 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쏟아진다"며 "농가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정해져 있어, 매번 거절하면서 마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 농촌에서는 임금 상승과 인력난에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비교적 인력이 적게 드는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농번기 전남지역 농작업 재배면적은 1만 5000여ha로 이 면적에 필요한 인력은 18만 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 근현대사 중심에 섰던 '동구의 인물' 두번째 책 출간

광주시 동구가 광주지역 출신으로 근현대사 중심에 섰던 지역인사를 기록한 '동구의 인물' 두번째 묶음을 발간했다.

5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출신이거나 동구에서 활동했던 19인의 역사 인물 이야기를 담은 '동구의 인물 2' 출판기념회를 6일 오후 4시 전일빌딩 3층 시민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수록인물 19인의 주요 업적 및 사진기록물 등이 전시되고, 편집자 및 집필진들

초청 북 토크 형식으로 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동구의 인물 2'는 항일 독립운동과 함께 노동·농민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서정호,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에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이기흥, 여성·인권·민주화에 앞장선 조아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윤상원 열사와 함께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박용준, 죽음으로 불의에 맞섰던 이철규 등 근현대 역사인물들의 생애를 담았다. 또한 근·현대 경계를 넘나들며 건축을 펼쳤던 김태만, 비

정형 추상화를 선도했던 강용운, 전라도를 노래한 시인 이상부 등 예술가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린다. 특히 이번 '동구의 인물 2'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 인물에 대한 전문가가 직접 집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근·현대 역사의 중심이었던 동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이들의 발자취를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육시민참여단 2기 단원 28일~6월 8일 모집

광주시교육청이 제2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공개 모집 입장을 발표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4일 출범한 시민참여단 제1기가 오는 7월3일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제2기 단원을 오는 28일~6월8일 모집한다.

교육협치에 관심 있는 시민 6명, 시민(직능)단체 추천자 20명 내외, 시의원 1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 자격은 공고일(2021년 5월25일 예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시이고, 최소

월 1회 이상 시민참여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북구), 11일 오후 3시 책문화공간 북(남구), 12일 오후 3시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동구), 13일 오후 3시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소강당(광산구)에서 총 네 차례 진행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참여 컨소시엄, 산업부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 사업 선정

내년 3월까지 100억 지원

전남대학교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100억 규모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2021년 반도체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하준석 교수(화학공학부)가 연구책임 맡았다.

이 사업은 연간 내년 3월까지 약 1년동안 100억

원 규모가 지원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차세대 반도체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자 공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반도체 장비를 개선하는 등 산업체 연구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주관대학인 가천대와 전남대 등 6개 참여대학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전달·저장용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와 조명에 적용할 수 있는 광 반도체, 그리고 트

랜지스터 및 캐패시터 등의 파워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공정·분석 지원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전남대는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 융복합 전문 핵심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해 산업체에 대해 연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해 지역에 공급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 66명 선정

전남교육청이 전남 미래교육 전환을 이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천단 66명을 선정했다.

지난 4월21일부터 10일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실천단에는 공간혁신·스마트교육·생태교육·마을교육 등 네 분야에서 교육을 실천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간혁신 분야에는 2019년부터 이어 온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사용자 참여설계와 학생주

도 학교공간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교사들이 참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스마트교육 분야는 전남의 IT교육을 이끌어온 전문교사들로 구성됐다. 생태교육 분야에는 생태환경지킴이를 자처했던 교사들을 비롯, 전남의 생태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